

경력

알버트 브랜들 직전 국제회장

미국 뉴욕 출신의 알버트 브랜들 씨가 2008년 6월 23일-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 91차 국제대회에서 국제회장으로 선출되었다.

그는 은퇴한 경찰이다. 그는 다년간 아동학대, 청소년 범죄, 아동이 연관된 가정 폭력 및 실종된 아동에 관한 수사를 관장했다.

그는 1975년 웨스트 햄스테드라이온스클럽에 입회한 이래 멜빌라이온스클럽의 준회원으로 클럽회장, 지구총재, 국제이사 등 국제협회의 요직을 맡은 바 있다. 미국/캐나다 지도력 포럼의 사회자 및 토론자로 활동했으며, 롱아일랜드 라이온스 안구은행의 운송자로 활동했다. 지난 10년간 유엔아동기금의 라이온 대표로 활동했으며, 2001년 9월 11일에 세계 무역센터에서 발생한 대참사를 수습하기 위한 라이온스 구조활동의 코디네이터로 활동한 바 있다.

그는 봉사경력을 인정 받아 국제협회로부터- 클럽회장상 우수상, 100% 지구총재상, 15회의 국제회장상 및 협회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상인 친선대사상을 수상한 바 있다. 그는 또한 프로그래시브 멜빈 존스 동지이다.

그는 라이온 활동 이외에도 리틀 리그와 같은 지역사회 단체에서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으며, 소속 교회에서 성찬식을 주도하는 목사 및 교구회의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. 또한 미국의 유엔협회 이사 및 미국의 유엔 비정부기구 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.

그는 라이온이자 지역병원에서 마취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부인 모린 머피씨와 살고 있다.

BRANDEL.KO